

보도	2023.12.19.(화) 조간	배포	2023.12.18.(월)			
담당부서	신용감독국 신용감독2팀	책임자	국 장	김충진	(02-3145-8370)	
		담당자	팀 장	조수경	(02-3145-8382)	

<h2 style="margin: 0;">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</h2>
--

### 1. 평가 결과

□ 채권은행은 '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231개사를 부실 징후기업으로 선정(전년 대비 46개사 증가)

- (등급별) C등급은 118개사, D등급은 113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34개사, 12개사 증가
- (규모별) 대기업 9개사, 중소기업 222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7개사, 39개사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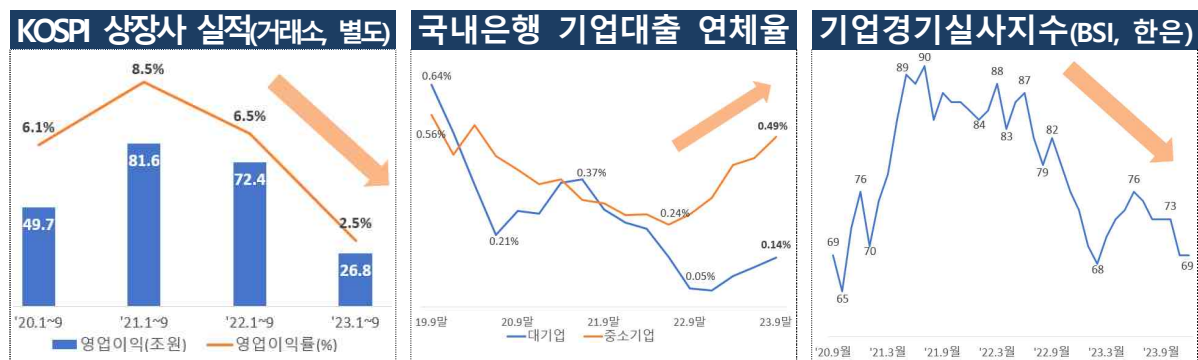
※ (대기업)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, (중소기업)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

부실징후기업 추이 (단위 : 개)							
구 분	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증 감
세부평가 대상	합 계	3,307	3,508	3,373	3,588	3,578	△10
	대 기 업	599	659	639	733	749	+16
	중소기업	2,708	2,849	2,734	2,855	2,829	△26
부실 징후기업	합 계	210	157	160	185	231	+46
	C등급	59	66	79	84	118	+34
	D등급	151	91	81	101	113	+12
	대 기 업	9	4	3	2	9	+7
	C등급	3	2	3	2	7	+5
	D등급	6	2	-	-	2	+2
	중소기업	201	153	157	183	222	+39
	C등급	56	64	76	82	111	+29
	D등급	145	89	81	101	111	+10

## 2. 부실징후기업 선정 동향 및 증가 원인

□ 코로나 기간('20~'21년) 중 부실징후기업 수가 감소하였다가 '22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

- 이는 '22년에 이어 대내외 경기부진 및 원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,
- '23년 들어 금리상승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 등이 증가한 데 기인



## 3. 부실징후기업 업종별 현황

- 부실징후기업은 세부평가 대상이 많은 부동산(22개), 도매·상품중개(19개), 기계·장비, 고무·플라스틱, 금속가공업(각 18개)에서 많음
- 전년 대비 고무·플라스틱(+11개), 자동차(+8개), 부동산업(+7개), 도매·상품중개업(+6개)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

주요 업종별 부실징후기업 (단위 : 개, %, %p)								
업종 구분	'21년	비중	'22년(A)	비중	'23년(B)	비중	증감(B-A)	증감
부동산	3	1.9	15	8.1	22	9.5	+7	+1.4
도매·중개	7	4.4	13	7.0	19	8.2	+6	+1.2
기계·장비	17	10.6	20	10.8	18	7.8	△2	△3.0
고무·플라스틱	10	6.3	7	3.8	18	7.8	+11	+4.0
금속가공업	21	13.1	16	8.6	18	7.8	+2	△0.9
자동차	16	10.0	9	4.9	17	7.4	+8	+2.5
식료품제조	5	3.1	13	7.0	11	4.8	△2	△2.3
기타 운송장비	11	6.9	13	7.0	9	3.9	△4	△3.1
기타	70	43.8	79	42.7	99	42.9	+20	+0.2
합계	160	100.0	185	100.0	231	100.0	+46	-

## 4.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영향

-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2.7조원\* 수준('23.9월말)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

\* 이중 은행권 신용공여가 73.4% 차지

-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총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은 약 3,500억원이며, 이에 따른 BIS 비율 변화폭 또한 미미한 수준\*

\* '23.6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6.68%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0.02%p 하락

## 5. 향후 계획

### 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 및 부실 정리 유도

- 자구계획 전제下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유도하여 채권단 중심의 경영정상화 지원
-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법적 구조조정 등을 유도하여 부실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 해소

### ②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
- 영업력은 있으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신속금융지원,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한 위기극복 지원
- 경영위기 중소기업이 유관기관(산업부·중기부) 지원\*을 폭넓게 받도록 은행권이 거래기업에 지원제도를 안내·추천하고 공동 금융지원

\* (중기부) 선제적 자유통구조조정 프로그램, 재기지원 컨설팅, (산업부) 사업재편

## 참 고

##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

- 국내은행은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제도 등을 운영 중

### 가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

- 국내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'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'을 운영 중
  - 신용위험평가 B등급인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금융회사 공동으로 만기 연장,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자구계획을 이행
  - 또한, 은행들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시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제공 가능

### 나 프리워크아웃

- 채권은행 단독으로 일시적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,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며, 기업은 자구계획을 이행
  - 신속금융지원이 은행간 협약에 따른 '공동지원' 중심인 반면, 프리워크아웃은 각 은행이 내규에 따라 '단독지원'하는 제도\*

\* 은행은 내부 신용등급, 대출금액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부실우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, 세부 적용요건은 은행별로 다소 상이

### < 참고 : 정기 신용위험평가 개요 및 절차 >

- ◆ 정기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, 평가등급별(A/B/C/D)로 필요한 사후조치 수행

